

1 개요

조선 현종 때 문과에 급제한 제주시 이호동 출신인 고흥진(高弘進)이 전적(典籍) 벼슬을 하게 된 내력담이다.

2 내용

고전적이 전적 벼슬을 하기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다. 부친을 토룡(土籠)을 해 놓고 일년이 거의 다 지나도록 아들들은 구산(求山)을 해서 안장(安葬)할 생각을 안했다. 고전적은 형님이 적자(嫡子)이고 만형이니 부친의 장사를 형님이 결정하리라 믿었고, 형은 풍수에 뛰어난 동생을 믿어 서로 방심하고 있었다.

형제의 이러한 사정을 눈치 챈 고전적의 형수가 중재하여 결국 형이 고전적에게 구산을 청하고, 고전적이 부친 뒤편자리를 정해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뒤편자리에 상두꾼들이 하관할 땅을 파는데 물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상두꾼들이 장사를 지내지 못하겠다고 웅성대었다. 그러자 고전적은 입었던 상복을 벗어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을 덮고는 하관하도록 상두꾼들을 독려했다. 뒤편자리가 옥녀 하문(下門)형이기에 오히려 터진 것이 좋은 징조였다. 이후 고전적은 서자 출신이었지만 전적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3 특징

고흥진(1602~1682)은 1618년 제주로 유배 온 간옹(艮翁) 이익(李穡)의 문하에서 명도암(明道菴) 김진용(金晉鎔)과 함께 공부를 하였으며, 사학과 지리학, 풍수지리에 뛰어났다.

효종 때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과 함께 『탐라지(耽羅志)』를 편찬했으며, 그의 소개로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1666년 식년시(式年試)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그런데, 이 전설은 풍수로 유명한 신안(神眼)이라 불리던 고흥진이 학업이 아니라 부친의 묘를 잘 써서 출세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4 핵심어

고전적, 고흥진, 신안(神眼), 이호동, 고전적 부친묘

5 원전 서지사항

고전적 부친묘(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

지관 김귀천(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